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1년
1월 11일
(화요일)

강북신문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힘찬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시무식과 함께 2011년도 의정활동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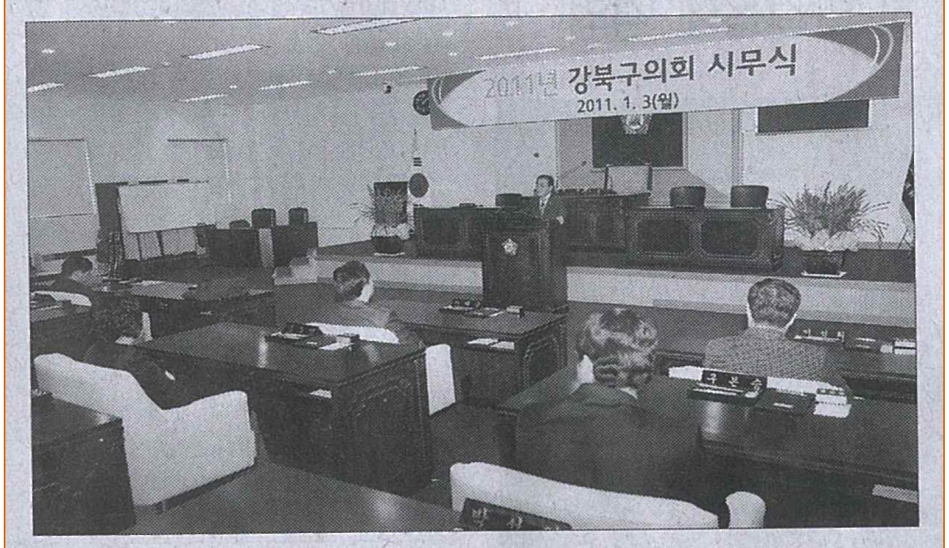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2011년도 1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시무식 행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새로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유군성 강북구의회의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신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 "새해에도 소통과 화합을 의회운영의 가장 소중한 좌표로 삼고 강북구의회가 사랑과 신뢰가 싹트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소중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포스트신문

강북구의회 시무식과 함께 의정활동 시작

잠재력 유감없이 발휘하는 희망찬 해가 될 것 다짐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이 2011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2011년도 1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시무식 행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새로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유군성 강북구의회의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신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 "새해에도 소통과 화합을 의회운영의 가장 소중한 좌표로 삼고 강북구의회가 사랑과 신뢰가 싹트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소중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2011년도에도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를 목표로 구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새롭게 변화하며 발전해갈 것을 다짐하며 힘찬 의정활동의 돛을 올렸다.

서울포스트신문

서울시의회 수유배수지 예산 전액삭감

대책위… 진지한 대안논의에 앞장서 줄 것 촉구

부지 기부채납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두 달여 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이 지난 해 12월 30일 통과된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전액삭감 결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월 23일과 12월 15일 각각 강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의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 들어서는 수유배수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시 환경단체들도 고지대 배수지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내 설치 적절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 커져왔고,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강북구의원들에게 수유배수지 신설은 주민편의 보다는 더파인트리 콘도의 상수도공급을 위해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에 빗장을 풀어줘 콘도 건설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혜행정이니만큼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예정임을 전달했지만 최 선, 구본승 두 명의 구의원만 반대한 가운데 기부채납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목소리 보다는 토건업자의 이해관계에 더욱 귀기울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강북구의원들이 이제라도 각성하고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더파인트리 콘도 건설에 대한 필요한 검토와 진지한 대안논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부신문

강북구 U-도서관 본격 가동

관내 4개 공공도서관과 3개 지하철역 연계, 자유롭게 도서 대출, 반납 가능

3월중 14개 동 마을문고까지 확대 예정

1월부터 지하철이나 집근처 도서관에서 관내 공공도서관의 책을 자유롭게 대출, 반납 할 수 있는 U-도서관이 강북구에서 본격 가동된다. 강북구는 U-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5일 오후 2시 시연회를 개최했다.

수유역 3번 출구 방향 무인대출 반납기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 구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수유역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 경과보고와 인사말, 축사, 테이프 커팅, 시연 설명 및 참석 내빈 시연의 순으로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U-도서관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도서관을 통합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전체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대출 및 반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강북구는 관내 3곳의 지하철역사(수유, 미아, 미아삼거리)와 4곳의 공공도서관(강북, 솔샘, 송중, 수유)에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도서 검색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예약 대출은 강북문화정보센터 등 강북구 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www.gangbuklib.seoul.kr)에 접속해 대출 신청 → 지하철 예약 → 책을 받는 지하철역을 지정, 신청하면 지정한 지하철역의 예약대출기에서 책을 받을 수 있다.

배송기간은 평균 1일 정도가 소요되며, 배송 완료 여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예약대출기 이용시 회원카드를 지참해야한다. 반납 또한 예약대출기 옆에 비치된 자가 반납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지하철 예약대출기는 현재 수유역 3번 출구 방향, 미아역 2번출구 방향, 미아삼거리역 1번 출구 방향에 설치돼 있다.

상호대차 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오는 3월부터는 14개 동 새마을문고까지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U-도서관이 구축돼 주민들이 지하철이나 집근처에서 편하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U-도서관을 확대하고 풀뿌리 도서관을 조성해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포스트신문

지하철을 도서관처럼, 강북구 U-도서관 본격 가동

관내 4개 공공도서관과 3개 지하철역 연계, 지하철역서 자유롭게 도서 대출, 반납 가능료서비스 가능



강북구 박겸수 구청장은 지난 5일 오후 2시 수유역서 U-도서관 구축·시연회서 내빈들과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2011년 1월 지하철이나 집근처 도서관에서 관내 공공도서관의 책을 자유롭게 대출, 반납 할 수 있는 U-도서관이 강북구에서 본격 가동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U-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1. 5(수) 오후 2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유역 3번 출구 방향 무인 대출반납기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강북구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수유역장,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 경과보고와 인사말, 축사, 테이프 커팅, 시연 설명 및 참석 내빈 시연의 순으로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U-도서관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도서관을 통합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전체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강북구는 관내 3곳의 지하철역사(수유, 미아, 미아삼거리)와 4곳의 공공도서관(강북, 솔샘, 송중, 수유)에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도서 검색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예약 대출은 강북문화정보센터 등 강북구 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www.gangbuklib.seoul.kr)에 접속해 대출 신청 → 지하철 예약 → 책을 받는 지하철역을 지정, 신청하면 지정한 지하철역의 예약대출기에서 책을 받을 수 있다.

배송기간은 평균 1일 정도가 소요되며, 배송 완료 여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예약대출기 이용시 회원카드를 지참해야한다. 반납 또한 예약대출기 옆에 비치된 자가 반납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지하철 예약대출기는 현재 수유역 3번 출구 방향, 미아역 2번출구 방향, 미아삼거리역 1번 출구 방향에 설치되어 있다.

상호대차 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 3월부터는 14개 동 새마을문고까지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U-도서관이 구축되어 주민들이 지하철이나 집근처에서 편하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 U-도서관을 확대하고 풀뿌리 도서관을 조성해 책읽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포스트신문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창단

3~5학년 학생 17명으로 구성 꿈나무들의 첫 발걸음에 격려



지난해 12월 29일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창단식을 개최하고 여자축구 꿈나무들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축구 명문 강북구 우이초등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창단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 오후 2시 우이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경과보고, 학교장 인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창단기 수여, 교가 제창, 폐회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장인 배종용 우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부단장, 감독교사, 코치, 선수, 박겸수 강북구청장, 국회의원, 강북구 체육회 인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여자축구 꿈나무들의 첫 발걸음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한편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단은 3~5학년 학생 17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성택 감독교사와 코치진들의 체계적인 지도와 전문적인 선수관리, 종합적인 지원 및 훈련을 통해 축구 꿈나무들을 양성하게 된다.

강북신문



본격 창단한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선수들과 내빈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강북구 여자축구 꿈나무들의 첫 걸음에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부 본격 창단

총17명 축구꿈나무로 구성돼 종합적인 지원받아

축구 명문인 강북구 우이동소재 우이초등학교에 여자축구부가 본격 창단됐다.

우이초교 여자축구부는 지난해 연말인 12월 29일 오후 2시 우이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경과보고, 학교장 인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창단기 수여, 교가 제창, 폐회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장인 배종용 우이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부단장, 감독교사, 코치, 선수, 박겸수 강북구청장, 정양석 국회의원, 오영식 위원장, 강북구 체육회 인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여자축구 꿈나무들의 첫 발걸음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한편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단은 3~5학년 학생 17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성택 감독교사와 코치진들의 체계적인 지도와 전문적인 선수관리, 종합적인 지원 및 훈련을 통해 축구 꿈나무들을 양성하게 된다.